서울주보

제2564호
2025년 6월 29일(다해)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교황 주일)

성 대 레오와 아틸라의 만남
라파엘로
(Raphael, 1483-1520)
1514, 프레스코, 500x750cm
바티칸 박물관, 바티칸시국

입 당 송 |
이 사도들은 세상에 사는 동안 자신의 피로 교회를 세웠으며, 주님의 잔을 마시고 하느님의 벗이 되었네.

제1독서 | 사도 12,1-11

화 답 송 | 시편 34(33),2-3.4-5.6-7.8-9(◎ 5ㄴ 참조)

◎ 주님은 온갖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셨네.

○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내 입에 늘 찬양이 있으리라. 내 영혼 주님을 자랑하리니, 가난한 이는 듣고 기뻐하여라. ◎

○ 나와 함께 주님을 칭송하여라. 우리 모두 그 이름 높이 기리자. 주님을 찾았더니 응답하시고, 온갖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셨네. ◎

○ 주님을 바라보아라. 기쁨이 넘치고, 너희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가련한 이 부르짖자 주님이 들으시어, 그 모든 곤경에서 구원해 주셨네. ◎

○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 그 둘레에, 그분의 천사가 진을 치고 구출해 주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행복하여라, 그분께 몸을 숨기는 사람! ◎

제2독서 | 2티모 4,6-8.17-18

복음환호송 | 마태 16,18 참조

◎ 알렐루야.

○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저승의 세력도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

복 음 | 마태 16,13-19

영성체송 | 마태 16,16.18 참조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르셨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발행 천주교 서울대교구 | **발행인** 정순택 |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 **인쇄** 가톨릭출판사 | **전화** 02)727-2114 |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 **홈페이지** https://cc.catholic.or.kr

cpbc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 | 라디오 FM 105.3MHz · 케이블 TV 지역마다 다름 | SKYLIFE 184번 | GENIE TV 231번 | B tv 297번 | U+ tv 274번

생명의 말씀

하느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안승태 요셉 신부 | 창5동성당 주임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에 보편교회는 신앙고백의 모범이 되시는 베드로 사도와 신앙의 내용을 밝히 깨우쳐 주신 바오로 사도를 기념하며 신앙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사도들의 전구를 청합니다.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물으신 다음, 제자들에게도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마태 16,15)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16,16)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던지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신앙인에게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일반 예비 신학생으로 교구 성소자 모임에 나가던 시기에 받은 과제 중에 '하느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주제로 자기 생각을 적어 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28년이 지난 지금도 간직하고 있는 저의 글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나를 존재하게 하셨고 생명을 주셨다. 그 누구와도 다른 모습으로 창조하신 하느님께서는 나의 삶 안에서 당신을 갈망하게 하셨고 겸손되이 당신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시었다. 하느님께서는 사랑으로 나를 불러주신다. 몸소 보여주신 사랑을 나 또한 살게 하신다. 그로 인해 당신은 사랑받으시길 원하시는 것이다."

제2독서인 티모테오 2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증언합니다. "주님께서는 내 곁에 계시면서 나를 굳세게 해 주셨습니다. 나를 통하여 복음 선포가 완수되고 모든 민족들이 그것을 듣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4,17)

교황 주일이기도 한 오늘, 우리는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인 제267대 교황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레오 14세 교황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한 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In Illo Uno Unum)라는 사목 표어를 통해 교황님께서는 인류가 사랑이신 하느님 안에서 하나되어 평화를 이루어 나가기를 지향하시며 주님의 양들을 돌보는 목자로서 사명을 수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갖 분열과 대립, 전쟁과 증오가 난무하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같은 병폐를 극복하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길은 일치와 친교를 위해 기도하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몸소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 안에 머무르며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화답송의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 온 인류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주님을 바라보아라. 기쁨이 넘치고, 너희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없으리라."(시편 34,6)

너는 베드로이다

성화 해설

이 그림은 452년 훈족이 침공하여 로마에까지 이르자 성 대 레오(레오 1세) 교황님이 훈족의 왕 아틸라와 회담하여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돌려보냈던 사건을 담았습니다. 무장 없이 시종 몇 명과 회담에 온 레오 교황 곁에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가 칼을 들고 나타나 호위하였다는 전승을 반영한 것입니다. 로마의 두 사도의 보호로 새로 뽑히신 레오 14세 교황님께서 전쟁과 갈등으로 신음하는 이 세상을 정의와 평화로 이끌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주열 안드레아 신부 | 삼양동(선교)성당 주임

말씀의 이삭

6월 말씀의 이삭은 우리 교구 민족화해위원회를 통해
북한 관련 사목에 함께하는 다양한 필자분들께서
(연구자, 선교사, 북한이탈주민, 청년 활동가 및 참가자) 채워 주십니다.

주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군요!

김미숙 데레사 | 민족화해위원회 우니타스 성가단원

"엄마! 엄마에게 딱 어울리는 봉사 활동이 있네요."라는 딸의 권유로 퇴직 후 민족화해위원회 소속 'Unitas'(우니타스) 성가대의 오디션을 보러 모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명동성당에 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가 '평화를 주옵소서'를 오디션 자유곡으로 정했는데, 마침 그날 미사에서 우니타스 성가대가 파견 성가로 그 곡을 불러 더욱 친근함을 느끼며 성가대 일원으로 기쁘게 봉사를 시작하였습니다.

'Unitas'(우니타스)는 '일치'라는 뜻으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 기도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민족화해위원회의 지향을 담고 있는 이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니타스 성가대원으로 명동성당 대성전의 제대 옆 성가대석에서 매주 미사를 봉헌하는 것이 제겐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연말에 본당에서 성경 나눔을 하는 모임의 대표를 맡아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부담감에 거절 의사를 밝히기 위해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이번만은 피해 가게 해 주세요. 다음에는 어떤 봉사든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일이 있고 보름쯤 지나 느닷없이 우니타스 성가대 단장으로 추천되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도구로 쓰려 하시는구나!'라고 느끼며 주님께 드린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번에는 흔쾌히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사순 시기를 보내며, 루치펠의 시샘인지 봉헌곡 선정 문제로 단원 간에 불협화음이 일기 시작하였습니다. 화해를 위해 애를 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화는 더욱 심해졌고, 급기야 단장인 저에게 공격의 화살이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난생처음 받아보는 모욕이었기에 억울해서 조배실을 찾아 펑펑 울면서 하소연하며 주님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계기로 매일 조배실에서 기도하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께서 저의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해 주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음의 중심에 하느님이 아닌 제가 자리 잡고 있어서 상대를 포용하지 못한다는 것도 일깨워 주셨습니다. 제 안에 살아 계시는 주님을 믿으며 어둠을 빛으로 변화시키는 주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은총으로 상대를 용서하고 받아들임으로써 평화로운 찬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일상 안에는 다양한 갈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성당 내 단체라고 해서 갈등이 비껴갈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든 상황이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용서와 화해의 겸손한 자녀로 성장하도록 이끄시는 주님의 계획임을 깨닫습니다. 최근에는 '화해 평화학교'에도 참여하여 남북한의 평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화해와 일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화해를 지향하며 기도할 때 우리 일상에서도 그리고 남북 관계에서도 갈등을 이겨내는 화해가 얼마나 큰 힘인지 느끼게 되지 않을까요? 갈등이 극복될 수 있음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의 가장 큰 동기부여

백근재 도미니코 사비오 |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중고등부 교육부

저는 어릴 때 큰 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도 성인이 되어 꼭 하고 싶었던 것은 주일학교 선생님뿐이었고, 어떤 대학에 진학할지, 어떤 전공을 선택할지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대학 합격 발표가 난 후 가장 먼저 달려간 곳도 성당이었고, 주일학교 교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대학 생활이 곧 교사 생활이 될 만큼,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성당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았습니다. 성인이 되어 누릴 수 있는 자유는 모두 교사 활동에 쏟을 만큼 몰입했기 때문입니다. 성당에서 만나는 청소년 친구들이 너무 예뻐서 주일만 기다리며 한 주를 보냈고, 본당을 넘어 지구, 교구 활동까지 하면서 좋은 동료, 선후배 선생님들을 만났는데, 그들과 보내는 시간이 그 어떤 것보다 행복하고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성당 활동에서 행복을 느낄수록 학교 수업에 빠지는 날이 늘었고, 학업에는 점점 소홀해졌습니다. 어쩌면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외면하고 지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교사 생활을 즐겁게 이어가던 중, 어느덧 졸업반이 되어 사회에 첫발을 내디뎌야 할 때가 되었고, 그제야 제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취업은 해야겠는데, 하고 싶은 일도, 자신 있는 일도 없었고, 그동안 대학 생활을 하면서 해 온 대부분의 활동은 성당과 관련된 것뿐이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외부 활동, 인턴, 어학연수, 공모전 등을 통해 차근차근 사회생활을 준비해 왔지만, 저는 그 필요성을 너무 늦게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그때 가장 두려웠던 것은 혹시 주일학교 친구들이 저를 '성당에서만 열심히 살면서 사회에서는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보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성당 신자분들도 '저 선생님은 성당 활동만 하느라 시간을 다 써서 결국 취업도 못 했네.' 라고 생각하신다면, 아이들을 주일학교에 보내는 걸 주저하시거나, 성인이 된 자녀의 교사 활동을 반대하시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도 들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은 성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면서 신앙과 삶의 균형을 이룰 때 진정한 완성에 이른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그때부터 그동안 소홀했던 학업과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 위한 준비를 더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 주일학교 교사로 열심히 활동하면 하느님의 은총을 받아 다른 일도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싶었습니다. 나아가 올바른 생각과 행동으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 과거 학생이었던 친구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본받고 싶은 좋은 어른이 되고 싶다는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지금도 주일학교에서 만난 청소년 친구들이 제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는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되어 주고 있습니다.

참다운 예배 (아모스서)

박진수 사도요한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아모스는 남유다에서 태어났지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아모스가 활동했던 시기는 대략 기원전 760년경으로 추정됩니다. "이스라엘 임금 여호아스의 아들 예로보암 시대에, 지진이 일어나기 이태 전 그는 … 환시를 보았다."(아모 1,1)라는 기록이 있는데, 실제로 기원전 760년경 팔레스타인 땅에 큰 지진이 발생했던 흔적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한 시기가 기원전 772년경이지요. 그러니까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비극을 고스란히 겪었던 예언자라고 하겠습니다. 구약의 저자들은 북이스라엘 멸망의 이유를 하느님께 충실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잘못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와 같은 역사서도, 예언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두 종류의 책들 사이에는 한 가지 큰 차이점이 있는데, 열왕기는 주로 왕의 잘못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예언서는 왕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의 삶을 향해서도 비판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예언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느님을 언짢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아모스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잘못들이 여러 번 언급됩니다. 그중에서 반복되는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벌금으로 사들인 포도주를 저희 하느님의 집에서 마셔 댄다."(2,8), "너희는 베텔('베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느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이던 장소)로 오너라. 그리고 죄를 지어라. … 아침에 너희의 희생 제물을 바치고 … 큰 소리로 자원 예물을 공포하여라. … 이런 것들이 너희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냐?"(4,4-5), "나는 너희의 축제들을 싫어한다. … 너희의 시끄러운 노래를 내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희의 수금 소리도 나는 듣지 못하겠다."(5,21-23)

이러한 내용을 보면, 아모스가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 앞에서 잘못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이름으로 성전에 모여 모임을 하기는 하는데, 포도주만 마셔대고, 많은 제물을 드리는 것을 자랑하고, 시끄러운 노래나 부르면서 마음은 담지 않았던 것. 그것이 바로 아모스가 비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지요. 이러한 모습이 과연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저지르던 잘못일까요? 오늘날 우리 안에서도 이와 유사한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다고 느껴지는 것은 저만의 기우일까요? 아모스 예언자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것 같습니다. 하느님 앞에서 각자가 참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2025년은 정기 희년입니다.
희년을 통하여 우리는 하느님께서 자비하신 분임을 기쁨 속에서 되새기며, 우리 교회도 전대사 수여를 통해 하느님의 자비를 다시금 전합니다. 방학을 맞이하는 자녀들, 친구들과 함께 우리 교구 각지에 위치한 순례지도 둘러보고, 전대사도 얻으며 하느님의 자비를 기억하는 시간을 보내보세요!

전대사 얻는 조건

1 진심으로 뉘우치고 고해성사를 받고
2 미사 영성체를 하고
3 교황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고
(매일미사 첫 페이지 교황님의 기도 참조)
4 순례지를 방문하여
5-1 미사, 말씀의 전례, 시간 전례, 십자가의 길, 묵주기도
5-2 또는 성체조배, 묵상기도, 주님의 기도, 사도신경, 성모님께 간구

1코스 2코스 3코스

1 명동대성당
2 김범우의 집 터 (장악원 터)
3 한국천주교회 창립터 (이벽의 집 터)
4 좌포도청 터
5 종로성지성당
6 광희문 성지
7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8 석정보름 우물
9 가회동 성당
10 광화문 124위 시복 터
11 형조 터
12 의금부 터
13 전옥서 터
14 우포도청 터
15 경기감영 터
16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성지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
17 중림동 약현성당
18 당고개 순교성지
19 새남터 순교성지
20 절두산 순교성지
21 노고산 성지
22 용산예수성심신학교
23 왜고개 성지
24 삼성산 성지

자세한 내용은
큐알(QR)코드를 확인해 보세요!

+용산 성직자 묘역
+천주교 용인공원묘원 성직자 묘역
(총 26개의 순례지)

그림 _ **김현진** 글라라 | 작가

가톨릭교리상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서울주보와 함께 만드는
가톨릭 교리 상식 코너

희년에 대해 알려주세요.

이제는 5년도 더 된 일이지만, 서울 시내 어느 아파트 단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곳은 1차, 2차라는 이름으로 서로 구분되기는 하지만, 같은 브랜드의 아파트가 서로 경계를 마주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가운데를 관통하는 도로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도로의 유지보수비를 누가 부담하느냐를 놓고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갈등이 커진 끝에 한쪽에서 다른 쪽의 차량 진입을 막는 말뚝을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반대편 아파트 단지에서 철제 보안문을 설치하여 아예 사람도 못 다니게 막고, 해당 아파트의 주민에게만 통행할 수 있도록 열쇠를 나눠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그 반대쪽 단지에서 바리케이드와 철조망까지 설치하여 삼엄하기 짝이 없는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배타성의 장벽을 세우며, '우리'라는 범주 밖에 있는 사람들을 밀어내곤 합니다. 단순히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할 때도 있지만,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완고함에서 그러할 때도 있습니다. 종교가 달라서, 경제적 지위가 달라서, 성별이 달라서, 세대가 달라서, 정치적 입장이 달라서, 다른 이들을 '우리'가 아닌 사람으로 규정하고 밀어내곤 하죠. 심지어는 아파트 단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밀어내기도 한다니, 웃고 넘길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구원 역사는 이 모든 종류의 차별과 혐오, 배타성과 불평등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발자취 중 하나가 바로 '희년'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50년 주기로 서로에게 진 빚을 완전히 탕감하고, 노예가 있으면 해방시키며, 하느님의 자비와 해방을 기억했습니다. 구약의 백성이라고 빌려준 돈을 못 받고, 샀던 노예를 무상으로 해방시키는 것이 안 아까웠을까요. 하지만 하느님께서 그들을 이집트 노예살이에서 먼저 해방시켜 주셨기에, 이스라엘에서 누리던 그 모든 삶이 가능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감정을 뛰어넘는 실천이 바로 구약의 '희년'이었습니다.

초대교회도 전통을 이어갔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선포 여정은 경제, 사회적 장벽을 허물어, 부유한 이들이 가난한 이들과, 지배하던 이들이 지배당하던 이들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느님의 자비를 선포하는 '희년'의 정신이 가득한 분이셨던 셈입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오르셨던 여정을 성지순례로 이해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동안의 삶을 참회하고 하느님과 화해하며, 순례의 여정을 떠나는 신약의 희년을 기리기 시작했습니다.

'희년'을 맞아 드러나는 중요한 하느님 자비의 표지 중 하나는 '전대사'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벌을 대신 짊어진 자비로운 분이심을 다시금 기억하고 드러내는 표지입니다. 다른 이들을 향하여 닫힌 마음의 문을 열고 화해의 손길을 내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분의 자비를 충만하게 입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현재 희년은 바티칸에서 4대 대성전의 성문을 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닫혀 있던 문을 여는 예식은 우리가 서로에게 닫았던 마음의 문을 여는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서로에게 철조망을 치고, 인터넷에서 악플을 날리며 혐오를 일삼는 이 시대에, 구원의 문을 여시는 주님 뒤를 따라, 우리도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세상을 향해 '희년'을 선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대사와 관련하여
지난 **가톨릭교리상식** 글을 살펴보세요!

희년과 관련하여 **사목국 기획연구팀의 희년 책자**에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세요!

서울주보는 앞으로 본당 이외의 일선 현장(특수 사목)에서 사목하시며, 함께하시는 하느님을 체험했던 다양한 신부님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올해는 해외선교봉사국의 도움으로, 해외선교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신부님들의 생생한 증언을 싣습니다.

길 위의 십자가, 생명과 죽음이 교차하는 그곳에서

양용석 프란치스코 신부
해외선교(페루 푸에르토말도나도 대목구, 비르헨데파티마 본당)

스페인과 남미의 일부 나라에서는 옛 전통에 따라 5월 3일에 '성 십자가 현양 축일'을 성대하게 기념합니다. 제가 사목하고 있는 이곳, 페루 아마존의 작은 도시 역시 그 전통을 소중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축일을 앞두고 우리 본당 공동체의 신자들은 모두 미사를 통해 9일 기도를 봉헌하며 마음을 모읍니다. 특히 우리 본당에는 운송업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삶을 위해 도로 위를 달리며 수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이웃들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비가 자주 내리기 때문에, 길이 붕괴되거나 산사태가 일어나는 등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외곽 도로는 인적이 드물어 강도들의 위협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곳 도로변에는 의외로 많은 무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일이 되면, 온 신자들이 힘을 모아 화려하게 장식한 십자가를 들고 거리로 나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높이 메고, 마을을 오가는 모든 길을 따라 축복 기도를 올립니다. 이는 힘겨운 노동과 크고 작은 위험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하느님의 보호를 간절히 청하는 오랜 전통이자 신앙의 표현입니다.

성 십자가 축일을 앞둔 어느 날, 본당 사무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한 어머니가 아들 기일 미사를 요청하셨습니다. 어디에서 미사를 봉헌하면 좋을지 여쭈었지만 어머니는 선뜻 답하지 못하셨고, 본당으로 직접 찾아와 당신과 함께 그곳에 가자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를 동행해 본당에서 꽤 멀리 떨어진 길가에 도착했을 때, 저는 무성한 풀숲으로 둘러쌓인 작은 무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제 아들 무덤이에요."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지금도 제 마음 한켠에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몇 주 전, 그분의 아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일을 하러 가던 중 강도들의 손에 허망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머니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깊은 슬픔과 억울함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차마 위로의 말을 건네지 못한 채, 한동안 어머니 곁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미사 후에 어머니는 아들이 잠든 무덤 주변의 도로를 축복해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이곳에서 '길'은 단순한 이동을 위한 통로가 아니라, 생계와 목숨, 희망과 절망, 죽음과 생명이 맞닿아 있는 역설의 공간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길 위에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일합니다. 그들은 때로 이 길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하고, 또 새로운 삶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물이 죽음과 생명의 두 얼굴을 가진 것처럼, 이곳 아마존의 길 또한 그러합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고통과 죽음의 상징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우리를 생명과 희망으로 이끄시는 하느님 사랑의 표지임을 깊이 체험합니다. 작고 가난한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어루만지며 함께 걸어갑니다.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씩 길 위를 걸으며, 하느님의 현존과 위로를 삶으로 체험합니다.

후원 문의 02)727-2407, 2409
후원 계좌 우리은행 454-035571-13-101 (재)천주교서울대교구
후원 전화 ARS 1877-1336 또는 큐알코드(QR) 접속

오늘(6월 29일)은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입니다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50년 7월 3일 이현종 야고보 신부(28세)
- 1950년 7월 5일 이순성 안드레아 신부(55세)
- 1980년 7월 4일 김재문 미카엘 신부(26세)

오늘(6월 29일)은 '교황 주일'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서울주보는 '환경 지킴이'가 되겠습니다

2023년 5월, 친환경 종이로 인쇄용지를 교체한 데 이어, 지난 6월 첫째 주부터 콩기름으로 서울주보의 인쇄 잉크를 교체했습니다. 이로써 인쇄 과정에서 배출되는 공해 물질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주보는 앞으로도 친환경 행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수 성심 성월 기도문

○ 지극히 어지신 구세주 예수님,
주님 앞에 꿇어 경배하오니
저희를 굽어살피소서.

● 저희는 이미 주님의 백성이오니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하나 되고자
오늘 저희를 주님의 성심께 봉헌하나이다.

○ 주님을 일찍이 알아 모시지 못한 사람도 많고
주님을 알고도 주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주님을 떠난 사람도 많사오니

● 지극히 인자하신 예수님,
이런 사람들도 다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의 성심께 이끌어 들이소서.

○ 주님께서는 목자이시니
주님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을 보살피시고
이미 주님을 떠난 사람들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어
굶어 죽는 일이 없게 하소서.

● 옹졸한 고집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나
불목하여 갈린 사람들도 부르시어
저희가 모두 같은 신앙을 고백하며
한 우리에서 한 목자 밑에 살게 하소서.

○ 주님, 거룩한 교회를 평화의 깃발로 세우시고
모든 나라에 참된 평화를 주시어
온 세상 어디서나 입을 모아
저희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성심께
영원히 찬미와 영광과 흠숭을 드리게 하소서.

◎ 아멘.

○ 예수 성심,

● 이 세상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소서.

교구청 알림

갤러리1898 전시 안내 / 문의: 02)727-2336

도현우 신부 서예전: 1전시실
2027 서울 WYD 주제 성구 묵상전: 2전시실
성미술 청년작가 공모전 선정작가 양승원 개인전: 3전시실
전시일정: 7월 4일(금)~13일(주일)

사목국 노인사목팀 '노인 예비자 방문교리'

사목국 노인사목팀에서는 건강상 본당 예비신자 교리반에 출석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교리 신학원 출신 선교사들을 파견하여 노인 예비자 방문교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리기준 및 기간: 본당에서 예비자 방문교리 진행이 불가한 경우에 한 함 / 예비자 소속 본당 신부의 승인 하에 교리교육 실시
교리 기간은 주 1회, 최대 3개월 과정으로 진행
문의(신청): 02)727-2385 / 신청 시, 교리 진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연락드립니다

시복 100주년 기념특별미사 및 도보순례 안내

1) 기해 · 병오박해 순교자 79위 시복 100주년 기념미사
때, 곳: 7월 5일(토) 오후 3시,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성지(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 **집전:** 순교자현양위원회 위원장 구요비 총대리 주교, 성지 담당사제단

2) 해설사와 함께하는 도보순례

일시	코스	비고
7월 30일(수)	저녁愛 순례길 (창경궁 코스)	저녁 7시부터 시작

회비: 회당 1인 7천원 / 전화 및 문자 접수 받지 않습니다
신청: 6월 30일(월) 오전 9시부터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검색창 : 순교자현양위원회)
문의: 02)2269-0413 순교자현양위원회

서울대교구 해외선교후원회 월례미사

대상: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회비 없음)
때, 곳: 7월 3일(목) 오후 2시~3시, 문화관 2층 소성당(꼬스트홀) / **문의:** 02)727-2407, 2409
집전: 오병윤 신부(성골롬반외방선교회 협력사제)

가톨릭 임상사목교육(CPE) 교육생 모집

위기나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가족, 교우, 이웃)을 돌보기 위한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영적돌봄 방법을 배우는 교육입니다 / **문의:** 02)727-2434
교육프로그램: 정규반(16주), 단기반(8주)
서울센터: 가톨릭회관 임상사목교육센터
수원센터: 성빈센트병원 임상사목교육센터

명동대성당 2026년 상반기 혼인예약 추첨

1) 2026년 1월~6월 혼인 예약 추첨
때, 곳: 7월 18일(금) 오후 2시, 명동대성당 대성전 낮 12시 성당마당 부스에서 추첨 순서번호표 배부 / 한 커플당 하나의 번호표만 수령 가능 이중추첨, 양도목적 등 위반 적발 시 혼인예약이 불가 / **문의:** 02)774-1784

2) 혼인 가능 장소, 요일 및 시간

대성당	금요일	13시
	토요일, 공휴일	12시 · 15시
파밀리아 채플	금요일	17시
	토요일, 주일, 공휴일	11시 · 14시 · 16시

3) 예약 시 필수 준비사항: ① 교적사본 1부(신랑 · 신부 중 1명), ② 예약금 50만원(현금 또는 수표 / 계좌이체 · 카드 불가)
성당 홈페이지(www.mdsd.or.kr) → 혼인성사 → 혼인미사 안내문과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 추첨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 이스라엘의 지혜문학 7월 특강

대상: 누구나(회비 없음, 성경 지참) / **강의:** 조창수 신부
내용: 잠언 욥기 코헬렛 집회서 지혜서 특강
때, 곳: 7월 4일(금) 13시~17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명동)
문의(신청): 010-8889-5425(문자) k가톨릭 성경영성 아카데미

서울대교구 법원 공시

아래 공시되신 분은 7월 14일(월)까지 교구 법원으로 연락바랍니다 / 관련된 혼인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성명: 윤정은 프란체스카, 조진 엘리사벳, 박관태, 이용곤 / **문의:** 02)727-2130, 2131(주말, 공휴일 휴무)

향심기도 월피정 / 문의: 010-4565-8898

대상: 소개강의 이수자 / **지도:** 이승구 신부
곳: 영성센터 B201호(구 계성여고) / **회비:** 1만원

직장인	7월 6일(주일) 13시30분~16시30분
일반인	7월 7일(월) 13시30분~16시30분

2025년 하반기 가톨릭 성음악아카데미 교회음악가 자격증 과정 모집

대상: 음대 졸업자(2년제 포함) 및 본 아카데미 실기전문과정 중급 이상의 실기 능력을 가진 자
원서접수: 7월 7일(월)~25일(금)
접수방법: 아카데미 사무국 전화문의 요망
곳: 최양업홀(전철 1 · 4호선 서울역, 2 · 5호선 충정로역)
문의: 02)393-2213~5(http://www.casm.co.kr)

하반기	개강 일정	8월 30일 개강
	교육 방법	이론과목 수강 및 연주를 위한 실기레슨, 토요 미사를 통한 실제 전례중심 교육
	교육 과정	**교회음악가자격증과정:** 3학기 과정 / 주말반 운영 서울대교구장 인준의 전문 중급 교회음악가 자격증 수여
		전례음악집중교육과정: 2학기 과정 / 주말반 운영 아카데미 원장 명의의 수료증 수여
	입시 일정	원서접수 → 면접전형(실기) → 합격자발표 → 등록

인준단체 알림

모임

녹번동성당 성령기도회 치유 무료 피정
강사: 김도영 신부(서울성령쇄신 담당) / 010-2452-3359
때, 곳: 7월 2일(수) 18시30분~20시30분, 녹번동성당 2층 소성당 / 내용: 말씀, 치유기도, 찬양, 미사, 안수

젊은이 성체조배의 밤(사랑이 피는 기도모임)
내용: 고해성사, 미사, 묵주기도, 성체조배
때, 곳: 7월 5일(토) 15시~18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
문의: 02)6253-3373, 010-8360-3700

11강남지구 성령기도회 / 문의: 010-9519-1608
때, 곳: 매주(금) 19시~21시45분, 역삼동성당 경환당(주차 가능) / 성령미사, 강의, 안수
김영춘 신부(11지구 성령 지도신부)

구산성지 신앙선조 영성 피정
내용: 성경직해(신앙선조의 성경) 풀이, 미사 / 주제: 원수를 갚는 좋은 방법은? 주님 이름으로 참고 견딥이다
지도: 정종득 신부(수원교회사연구소장) / 찬양: 고영민
때, 곳: 매월 둘째주(토) 7월 12일 14시~18시, 구산성지
회비: 1만원 / 문의: 031)792-8540 구산성지 사무실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 피정·교육
청년 피정 2박3일 / 대상: 40세 미만 청년 남녀 누구나
주제: 나의 희망은 하느님에게서 옵니다
때: 7월 18일(금) 20시~20일(주일) 13시
곳: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파주 운정)
회비: 8만원 / 문의(접수): 010-9099-2337

토아올람 화요 치유 피정
때, 곳: 매주(화) 12시~16시,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종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7월 1일	이상윤 신부	7월 8일	김귀분 수녀

피아골 피정 성지순례 / 문의: 010-3712-8119

피아골 피정	7월 18일~19일, 9월 19일~20일, 11월 21일~22일
피아골 여름휴가	8월 15일~17일
홍성남 신부	북해도 8월 25일~28일, 아키타 9월 8일~12일

가정선교회 7월 피정
문의: 0505-091-0523, 02)777-1773
때, 곳: 12시30분~16시50분, 가톨릭회관 3층 강당

성가정 영성 피정	7월 2일(수) / 김경진 신부, 이현주 회장
토요 피정과 성모신심 첫토 미사	7월 5일(토) / 한철호 신부
치유·회복을 위한 찬양 피정	7월 19일(토) / 김현우 신부 찬양: 고영민 부회장, 손현희 팀장

교육

토요 여행영어 5회(한국여성생활연구원)
언어학박사 배명숙 / 문의: 02)727-2471

미사반주 및 묵상곡을 위한 오르간 교육
때: 7월 7일부터 (월)~(토) 10주
주최: 아퀴나스오르간연구소 / 문의: 02)338-3793

새천년복음화학교 영성교육
주제: '야훼의 종' 모세 / 말씀: 조성풍 신부
때: 7월 6일(주일) 13시30분~16시20분
곳: 가톨릭회관 7층 강당 / 문의: 02)753-8765

음악심리 상담사 자격 초급반
때, 곳: 7월 22일~8월 5일 매주(화) 13시30분~16시30분, 한국음악치료연구소(전철 3호선 대청역) / 회비: 15만원
문의: 010-4252-1165 가톨릭성음악클래식기타회

제22회 가톨릭 대안 좋은학교 연수
대상: '좋은 교육'에 관심있는 학부모·교사
때, 곳: 7월 19일(토) 9시~17시, 양업고등학교
접수: 7월 8일(화)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회비: 5만원(식사비 포함) / 문의: 043)260-5076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예수회 이냐시오 영성연구소 특별강좌·침묵 피정
1) 특별강좌 / 문의: 02)3276-7799
주제: 하느님의 뜻 식별-선택과 결정의 길잡이
때, 곳: 10월 17일·10월 24일·11월 14일·11월 28일·12월 12일 14시~16시, 예수회센터 103호
2) 영신수련 침묵 피정 / 문의: 02)3276-7790
때: 7월 25일(금)~29일(화), 8월 6일(수)~10일(주일)

에파타성당 수어교실 개강
회비: 12만5천원(6개월 과정) / 문의: 02)995-7394

개강	에파타성당	명동대성당 범우관 408호
7월 9일(수)	13시30분~15시	·
7월 10일(목)	20시~21시30분	19시~20시50분
7월 11일(금)	·	19시~20시50분

모집

예수성심 전교수도회 재속(친교회) 회원 모집
대상: 만 65세 이하 교우 / 문의: 010-8735-4889

서초동성당 첼룸 체임버 모집 / 문의: 010-2779-1714
대상: 20~40대 남성합창 및 팀파니 / 오디션 개별 안내
11월 레퀴엠 공연 예정 / 연습: 첫째·셋째주(주일) 19시~20시

미사

절두산순교성지 로사리오회 예수성심 신심미사
내용: 연령과 가정을 위한 기도와 미사 / 02)3142-4434
때, 곳: 7월 4일(금) 11시10분, 절두산순교성지

첫토요일 신심미사(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내용: 성모님의 요청대로 미사
때, 곳: 7월 5일(토) 9시30분~낮 12시, 가톨릭회관 3층 / 문의: 02)756-3473, 010-2759-3473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때: 7월 4일(금) 14시~16시
곳: 가톨릭회관 1층 강당 / 문의: 02)929-2977

꼰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성모신심미사
때: 7월 5일(토) 10시 / 내용: 성모마리아 신심 미사
곳: 프란치스코 수도원(한남동) / 문의: 02)793-2070

안내

정신분석심리상담센터 IPC
대상: 심리적, 정신적, 영적인 고통으로 전문적인 심리상담치료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
곳: 강남 / 문의: 010-9139-1937 마리아의 작은 자매회

삼양동 선교본당 재활용매장 '살림'
의류·가방·신발·생활용품·가전제품을 기증받음
재활용 사업을 통해 환경을 살리고 이웃을 도움
기증 수거방문 기준: 2상자 이상 / 문의: 010-5751-3978

중림동약현성당 2026년 1~3월 혼인예식 추첨
때: 7월 13일 오후 3시 / 문의: 02)362-1891
준비물: 교적 사본, 예약금 100만원(카드 불가)
주의사항-2026년 4월~12월까지 예약은 10월중에 추첨이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본당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천해수욕장 요나성당(연수원) 운영
대천해수욕장 관광 및 휴양, 개인 피정, 매일미사
대전교구 성지순례를 위한 숙소로 이용 가능
참고(인근 성지): 갈매못 순교성지, 서짓골 성지, 청양 다락골 성지 / 문의: 041)934-7758 요나성당
방법: '요나성당 연수원' 검색
홈페이지(yonaresort.modoo.at) 참조

직원모집

화곡2동성당 주방근무자 모집
분야: 주방근무자 1명 / 문의: 02)2065-3821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신자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 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서류 전형 후 개별 면접(합격자 개별 연락)
채용시까지 사무실 방문·우편(우 07782, 서울시 강서구 곰달래로 32길 19) 및 이메일(hssaint@seoul.catholic.kr) 접수 / 채용 후 제출된 모든 서류를 폐기하겠습니다

서울대교구청 생명위원회 직원 모집
대상: 세례받은 분으로 회계 업무 가능한 분(더존 위하고 활용) /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연락)
분야: 부서 회계 및 사무행정 담당 교구사무원 1명(계약직 / 추후 정규직 전환 가능) / 이메일 문의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 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지원분야 기재),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본당 사무실에 신청) / 7월 13일(주일)까지 우편(우 04537 서울시 중구 명동길74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무처) 및 이메일(aoinsa@seoul.catholic.kr) 접수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꼰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매월 첫째주(주일) 14시	성 보나벤투라 수도원(혜화동)	010-4344-1997 권정대 수사 신부
도미니코 수도회	수시	수도원(강북구 삼양로 139나길 16-8)	010-2034-0042 이효준 신부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개별적 협의	수녀원(미아동)	010-5604-1882
착한목자수녀회	수시	수녀원(전철 7호선 건대입구역)	010-7197-1390 효주 수녀
한국순교복자빨마수녀회	수시	전화 상담 후 결정	010-9199-4995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수시(Zoom)	가톨릭회관 209호	010-9353-17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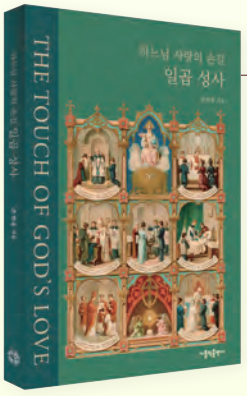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7월 출간

새 교황님의 전기 국내 최초 공개

교황 레오 14세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님 추천



신간

하느님 사랑의 손길 일곱 성사

손희송 지음 | 1만5천원

손희송 주교님이 전하는 하느님의 선물,
우리에게 주어진 일곱 성사

인생 여정의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는 은총의 표징

신간

리추얼, 하루의 리듬

안셀름 그륀 지음 | 2만8천원

삶의 균형과 치유를 위한
일상 속 '리추얼'의 지혜

안셀름 그륀 신부님이 전하는
삶의 리듬을 되찾는 방법

가톨릭북플러스

www.catholicbookplus.kr

배움과 만남이 있는 디지털 신앙 플랫폼,
가톨릭북플러스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웹진
교리부터 신학까지
신앙에 깊이를 더하는
가톨릭 전문 매거진

커뮤니티
기도, 필사, 나눔 등
나에게 딱 맞는
온라인 신앙 활동

쇼핑몰
신앙 서적과 성물,
주얼리까지 다양한
상품을 한자리에

가톨릭출판사

가톨릭의 모든 도서와 성물, 디지털 콘텐츠를
'가톨릭북플러스'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www.catholicbookplus.kr ▼

구입문의
02) 6365-1888

◉ 무지카사크라 소년합창단 작은 연주회

「주님과 음악 사이에」

·일 시 : 매월 첫째 · 셋째 주일 / 오후 3시 30분
·장 소 : 명동대성당 대성전
※단원모집 : 초2~5학년 가톨릭 신자 남아 / 010-7242-6027

(QR코드 참조)☞

◉ 명동대성당 청년성가대 엘리 단원 모집

·모집대상 : 20세~33세(93년생~06년생) 천주교 신자로서 매주 성실하게 봉사할 수 있는 분
·모집기간 : 6월 30일(월)까지
·제출서류 : 입단신청서 1부, 교적증명서 ☞ 오디션 당일 제출
·오디션 및 면담 : 7월 13일 예정(입단신청자 개별 공지예정)
☞ 성가 자유곡 1곡, 악보 2부 지참
·문의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명동성당 청년성가대 엘리 단원모집

◉ 명동대성당 새벽미사봉사단 단원 모집

·모집분야 : 평일(월~토) 오전 7시 미사 독서봉사자
·모집기한 : 6/30(월)까지
·지원자격 : 세례 및 견진성사 받은 지 3년 이상 (55세 이하)
·문 의 : paulbibi@naver.com

◉ 명동대성당 가톨릭여성합창단 단원 모집

·활 동 : 주일 오전 11시 미사,
매월 둘째 주일 세례식 성가 봉헌
·대 상 : 성가를 사랑하고 성음악에 관심있는 만 55세 이하 여성 가톨릭 신자
·오디션 일시 : 7/20(일) 낮 12시
·오디션 장소 : 명동대성당 문화관 3층 명례방
·오디션 준비 : 자유곡 또는 가톨릭성가 중 1곡
·문 의 : 단장 ☎ 010-2230-0138

◉ 아미쿠스 주일학교 남자교사 모집

아미쿠스 주일학교는 미사를 참례하고자 하는 발달장애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주일학교입니다.
※남자교사가 부족하여 추가 모집합니다.
·모집대상 : 세례성사를 받은 만 20세~만 40세 가톨릭 신자
·주요활동 : 주일 오전 10시 아미쿠스 주일학교와 함께 하는 미사, 미사 후 교리 등
·문 의 : mdsd.amicus@gmail.com (※메일로 연락 요망)

◉ 명동대성당 장년봉사분과 봉사 회원 모집

·모집조건 - 가톨릭에서 세례를 받은 만 45세~65세 남성 교우 명동성당 행사 및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가 가능한 분
·제출서류 - 교적증명서 〈밀봉 요망〉
·종현회 : 매월 둘째주 일요일 오후 5시 회합 ☎ 010-2838-6401
·대건회 : 매월 1회 비정규일 회합 ☎ 010-9011-8990
·범우회 : 매월 둘째주 목요일 오후 7시 회합 ☎ 010-6340-3528
·광암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후 5시 회합 ☎ 010-8713-2000
·하상회 : 매월 셋째주 토요일 오후 7시 회합 ☎ 010-3687-2322
·만천회 : 매월 셋째주 수요일 오후 7시 회합 ☎ 010-8611-4097

생미사 · 연미사 지향 신청 방법 안내

생미사 · 연미사 지향 신청은 **본당 사무실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온라인 · 전화 신청 및 사무실 대리 신청 불가 !). 주교좌 성당이기에 연중 특별한 지향으로 봉헌되는 미사가 종종 발생하고, 여느 본당보다 신청자가 많아 신청 마감 시간이 있습니다.
요일별 마감 시간 이후부터는 다음 날 오후 미사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원하시는 날짜 사흘 전까지 방문하시면 마감 시간에 국한되지 않고 여유롭게 신청하실 수 있으니 아래 내용 숙지하시어 많은 협조 바랍니다.

✥ 사무실 방문 신청

· 화~금요일 : 오후 4시에
당일 오후 6시 · 7시 미사 ~ 다음 날 오전 7시 · 10시 미사까지 접수 마감

· 토요일 : 오후 4시에
당일 오후 6시 · 7시 미사 ~ 일요일 오전 7시 · 9시 · 10시 · 11시 미사까지 접수 마감

· 일요일 : 오후 2시에
당일 오후 미사 ~ 월요일 오전 · 오후 미사 & 화요일 오전 7시 · 10시 미사까지 접수 마감
☞ 월요일은 성당 사무실이 휴무이므로 월요일 오전과 오후 미사 모두 오후 2시에 함께 마감됩니다.

✥ 법정 공휴일 미사 신청

법정 공휴일(설 연휴 · 삼일절 · 선거일 · 어린이날 · 부처님 오신 날 · 현충일 · 추석 연휴 · 개천절 · 한글날)과 근로자의 날은 성당 사무실 휴무입니다. 휴무일 전후로는 사무실 방문 신청 마감 시간이 평시와 다를 수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어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휴무 기간 중 일요일과 1월 1일, 8월 15일, 12월 25일은 정상근무합니다.)

✥ 대성전 현장 신청

· 월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6시 미사, 화~토요일 오전 10시 미사에 한해 현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성전 입구에 비치된 미사예물 봉투를 작성하시고 예물을 담아 제대 앞에 놓인 생미사함(연미사함)에 미사 시작 10분 전까지 제출하십시오. 미사 전 수거하여 사무실에서 미리 접수된 지향자 명단과 함께 신부님께서 추가로 호명해 주실 것입니다.
☞ 지향자가 가톨릭 신자이면 '성(姓)+세례명'으로 호명되고, 비신자일 경우 '성명(姓名)'으로 호명됩니다.

✥ 신청 불가한 미사

- 주일 및 의무 축일 낮 12시 교중미사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 매월 마지막 목요일 오후 7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미사
- 평일미사가 사제 또는 교우의 장례미사로 봉헌될 때
- 평일미사가 교구로부터 하달된 특별한 지향으로 봉헌될 때

✥ 연미사 신청만 가능한 미사

- 매년 명절(설 · 한식 · 한가위)과 위령의 날(11월 2일) 봉헌되는 모든 미사는 '합동 위령미사'로만 봉헌되어 생미사 신청은 불가하고, 지향자 호명은 하지 않습니다.

◉ 2025년 상반기 견진성사 사진 찾아가세요 !

·장소 : 명동대성당 범우관 403호 사진부
·문의 : 본당 사무실 ☎ 774-1784

774-1784(대)
753-1784(FAX)
본당 연령회
010-6375-1784

천주교서울대교구 주교좌명동대성당

주 임 조성풍(아우구스티노) 신부
수석부주임 나창식(안드레아) 신부
청년·문화예술 나연수(안토니오) 신부
선교·교육 문재현(바오로) 신부
전례·성음악 이철규(아우구스티노) 신부
장애인신앙교육 이승규(토마스아퀴나스) 신부
외국인전담사목 세베로 이사악(이사악) 신부

미사 성가	입당 : 291	봉헌 : 258, 217, 511	성체 : 167, 166, 154	파견 : 200

《 정순택 대주교님께 드리는 영적 선물 》

오늘은 교구장이신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님**의 **영명축일**입니다. 대주교님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사 및 영성체, 묵주기도, 성체조배, 희생
* 주교를 위한 기도

《 축하합니다 》

6월 29일 오늘은 본당 선교 · 교육 담당이신 문재현 **(바오로) 부주임 신부님**의 **영명 축일**입니다. 신부님의 영육 간 건강을 위해 많은 기도 바랍니다.

◉ 교황 주일 2차 헌금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이자, '교황 주일'인 오늘은 교황의 직무수행을 보조하고, 전 세계의 궁핍한 이들을 돕는 자선활동을 지원하는 특별헌금이 있겠습니다.

◉ 병자 영성체 : 7/2(수) 오전 9시

◉ 교구장님과 함께하는 성체조배

·일시/장소 : 7/3(목) 오후 7시 40분 / 대성전

◉ 천사(천원의 사랑)가 되어 주세요 !

· 7/6(일)에는 의료소외계층을 위한 무료진료소를 운영하는 (재)라파엘나눔'의 천사가 되어주세요!

◉ 2025년 7월 예비신자 교리반 (6개월 과정)

교리반	시 간	장 소	강 사
목요반	오후 7:30	교구청본관 401호	세베로 (이사악) 신부
주일반	오후 4:00	교구청본관 401호	이 마리헬렌 수녀

· 목요/주일반 택1, 2시간 교리수업, 주일미사 참례 필수
· 환영식 : 7/6(일) 오후 2시 교구청본관 501호
· 첫 수업 : 7/10(목) 19:30, 7/13(일) 16:00
· 전화 · 사전 신청 불가
· 준비물 : 교재비 2만원, 반명함판 사진 1매

◉ 2026년도 상반기(1~6월) 명동대성당 혼인 예약 추첨

·추첨일시/장소 : 7월 18일(금) 오후 2시 / 대성당
☞ 낮 12시부터 '성당마당 부스'에서 '추첨 순서번호표'를 배부합니다. (한 커플당 하나의 번호표만 수령 가능)
☞ 2026년도 하반기(7월~12월) 혼인 예약 추첨은 2026년 1월~2월 중 추첨 예정 (일정 별도 공지)
☞ 이중 추첨, 양도 목적 등 위반 적발 시 혼인예약 불가!

·혼인장소 · 요일별 혼인 가능시간

혼인장소	요일	시간
대성당	금	13시
	토, 공휴일	12시, 15시
파밀리아 채플	금	17시
	토, 일, 공휴일	11시, 14시, 16시

·필수준비사항 : ① 교적증명서 1부 (신랑 · 신부 중 1명)
② 예약금 : 50만원 (현금 또는 수표)

※예약금 납부는 **계좌이체 · 카드결제**가 **불가**합니다.
※본당 홈페이지→혼인성사 안내→**'혼인미사 안내문과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추첨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에 계신 분들(한인성당 교적자 제외)은 본당 신부님으로부터 혼인성사를 받기에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다는 **「사실 확인서」**를 받아 오시고, 이를 혼인 추첨 당일에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추첨 이후 혼인예약 현황은 7월 25일(금)부터 본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명동대성당 제67회 파이프오르간 연주회

·일시/장소 : 6월 30일(월) 오후 7시 30분 / 대성전
·연주자 : 박준병 바오로, 최수영 프란치스코
※무료 공연으로 누구나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 우리들의 정성 》

- 교무금 (6/16-6/22).....15,705,000
-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헌금..36,157,000
-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2차 헌금.....15,066,000
- 감사헌금 (6/16-6/22).....5,727,000

김 글라라 / 박 레지나 / 서 세시리아 / 심 알베르또 / 어 안젤라 윤 안젤라 / 이 베드로 / 임 사무엘 / 전 마리안나 / 최 베네딕도 피 나꼴라오 / 익명 ②

미사 (Mass)

주일미사 (일요일)	07:00, 09:00(English Mass), 10:00(아미쿠스 주일학교와 함께하는 미사), 11:00, 12:00(교중미사), 16:00, 17:00, 18:00, 19:00(청년미사), 21:00		
주일미사 (토요일)	18:00, 19:00(3545+ 청년미사)		
평일미사	월	07:00, 18:00	
	화-금	07:00, 18:00, 19:00	
	토	07:00	
성지미사	월-토	10:00	
※모든 미사는 '대성당'에서 봉헌합니다.			

유아 세례 (Baptism of Infants)
매월 첫째 주일 13:30 ※직전 금요일까지 접수

고해성사 (Confession)

토-일	10:00 - 20:00	화-금	11:00 - 20:00
월	13:00 - 17:00 (성직자 · 수도자 대상) ※일반신자는 다른 요일을 이용하십시오.		

외국인을 위한 고해성사 (Confession for Internationals)

Sun.	08:30 - 08:50
Sat.	16:00 - 17:00

주일헌금 봉헌 QR 코드

【 1% 행복발견 】 일상 안에서 하느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행복 발견하기'

가족과 친구, 지인들에게서 힘든 시간이 지나고 웃는 모습을 보니 행복합니다.